

# 칼과 가방

## Knife and Bag

각본/연출 윤솔빈

010-6257-0615

gsyho99@naver.com

장르

미스터리, 드라마

러닝타임

24-25min

로그라인

은서는 전학을 온 지 얼마 안된 전학생이다. 반에서 존재감이 없는 은서와 유일하게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지안이다. 그런 지안에게 가방에 칼을 넣고 다닌다는 소문이 생긴다. 은서는 지안의 가방을 몰래 훔치려고 한다.

## 1. 음악실 / 낮

음악실, 쉬는 시간. 각자 자리에 저마다 앉아 리코더로 첫가락 행진곡을 연습하는 아이들, 그룹을 나누어 악자지킬 노는 아이들의 전경이 보인다. 그 사이 소속되지 못하고 홀로 자리에 앉아 아이들 눈치를 살피며 리코더를 투투- 대충 부는 은서(14세, 여)가 보인다.

은서, 이내 은서 옆으로 반 친구 민서가 자기 자리에 앉는다. 눈치를 보다가 말을 건네는 은서.

은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민서야...너는 수행 조 정했어?

은서의 말에 놀라는 민서. 당황한다.

민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..응...나 수아랑 하기로 했는데.

은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...

음악실로 수아와 함께 아이들이 몇 명 들어오고, 아이들은 민서를 데리고 교실 뒤편으로 간다.

민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야 씨, 왜 이제 와!

유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장난치며) 야 너네반 음악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!

수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웃으며) 애 우리반 갔다가 다시 내려왔대~

뒤편에서 친구들이 소근거리는 이야기. 자기들끼리 소근거리지만 작게 대화소리가 들려온다.

유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...재는 누구야?

민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얼마 전에 전학 온 애.

유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 그래? 나 못 봤는데...

민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김지안 친구.

유진

아아...

#### 14. 교실 / 낮

이내 옆에서 뛰면서 놀던 남자 아이 한 명이 책상에 걸려 지안 쪽으로 넘어지는데, 지안도 같이 걸려 넘어진다.

아파하는 아이. 일어나더니 지안을 째려보며 지안과 닿은 팔을 툭툭 던다. 이를 바라보던 은서,

은서            지안아 괜찮아? ...야 뭐야. 사과해.

지웅            원 소리야.

은서           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.

지안, 익숙하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듯 가방을 다시 챙긴다.

지웅            (되려 화를 내며) 애가 나한테 사과해야지. 병 옮을 뻔 했잖아. (팔을 툭툭 던다)

은서            무슨 병! 병이 어딴어!

아이들, 소리를 외치는 은서를 뒤로 한 채 그냥 자리를 떠난다. 아이들을 째려보다가, 다시 지안에게 말을 하는 은서.

#### 17. 음악실 / 낮

지안이 음악실을 나서고 한참 있어서야 반이 웅성웅성해진다. 다시 아이들의 합주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. 천천히 페이드 아웃된다.

아이들            재네 왜 저러는 거야?

아이들            쌤 불러올까?

아이들            김지안 미친 거 같아...